

## 4·11 총선 돋보기

## (8) 선거인단 모집 백태

## 알바 동원 명단만 보고 무차별 문자 공세

민주통합당이 4·11총선 공천을 위해 마련한 국민경선제도가 갖가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모바일 투표를 도입함에 따라 곳곳에서 온라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동원·조직·돈 선거 등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뜻대로 펼쳐지에 대해 벌써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들 선거인단 모집에 승부=후보들은 선거인단 모집이 경선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고 있다. 우선 자신에게 우호적인 선거인단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호적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일단 캠프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후 각종 설득 방법으로 자신의 표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선거인단에 등록해야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자발적 참여자는 거의 없어=민주당 지도부는 처음 국민경선을 도입하면서 자발적 참여자를 통한 선거 혁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실제 자발적 참여자는 희박한 상황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날 “광주·전남에서 모바일 투표 신청자 중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10% 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도 안 된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대부분 조직적으로 모집된 선거인단이라는 것이다.

◇대리등록 횡행=조직이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하다 보니 대리등록이 여기저기서 발발되고 있다. 무엇보다 등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로 등록하려 해도 몇십 분씩 통화 중이어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수다. 모바일 투표를 하려면 실명 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본인

## 공천혁명이라지만 자발적 참여 10%도 안될 것

## 등록절차 복잡, 조직·자원봉사자 대리등록 횡행

도입하면서 자발적 참여자를 통한 선거 혁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실제 자발적 참여자는 희박한 상황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날 “광주·전남에서 모바일 투표 신청자 중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10% 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도 안 된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대부분 조직적으로 모집된 선거인단이라는 것이다.

◇대리등록 횡행=조직이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하다 보니 대리등록이 여기저기서 발발되고 있다. 무엇보다 등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로 등록하려 해도 몇십 분씩 통화 중이어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수다. 모바일 투표를 하려면 실명 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認證)→본인 인증 문자메시지 수신→인증번호 입력→본인 인증 완료→주소 등록 및 선거구 확인→신용정보회사 주소 확인→일치할 경우 선거인단 확정→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될 경우만 선거인단 확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때문에 휴대전화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은 원천적으로 등록이 불가하다.

후보 입장에서 대리등록을 해주는 이유가 된다. 우선 후보와 가까운 조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캠프 사무실로 불러놓고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리 접수하게 한다.

◇대리접수 위한 전화 공세=또 주민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각종 명단을 확보해 전화를 통해 등록을 권유하는 방법도 상용된다.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 명단에 적힌 사람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기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대리 등록을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확보한 명단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이 전화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르바이트생 귀하신 몸=대리접수가 헛수를 이루면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상당수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은 집이나 모텔 등 별도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자원봉사자로 둔 갑시켜 대리등록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비후보 층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 일당은 하루 7만~8만원 이었으나 경쟁이 격열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힘들어 지금은 10만원 정도 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니 미성년자들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등장하는 일까지 등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투신 자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광주에 내려온 민주통합당 정장선 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진상조사단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관위 직원들과 사건 개요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 국민경선 선거인단

## 100만명 달할 듯

## 89만명 접수·오늘 마감

19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이 29일 마감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청 마감 하루 전날인 이날 오후 6시 현재 선거인단 신청자 수는 89만1084명이다. 선거인단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은 마감일인 29일까지 신청이 마감되면 선거인단 신청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1·15 전당대회 선거인단 수인 79만 2000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민주당은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을 마감(밤 9시)한 뒤 하고 선거인단 접계를 끝나는 대로 경선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지역별 경선전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3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3명의 인재영입 대상자를 공개한다.

공심위는 공천자 명단 발표에 앞서 30여 곳의 수도권 지역 공천신청자에 대한 종합 심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명단은 이날 밤 늦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지역구 변경 불구 출마 의지 밝힌 이개호 후보

## 민주당에 공정한 공천 요구

지역구가 사라져버린 담당·곡성·구례지역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이개호 예비후보는 28일 예비후보들간 공정경쟁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출마의지를 내비쳤다.

이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농촌 지역구를 공정분배한 것은 지역구 강탈이나 다툼에는 강자의 횐포”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구를 지키지 못해 지역민 모두에게 머리 속에 죄송하다”며 “그러나 농도 전남을 대변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당·곡성·구례 선거구에서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국정근 후보는 전날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고현석 후보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 후보는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29일 마감됨에 따라 기존 경선방법을 바꿔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 확정이 늦어진 만큼 사실상 선거구가 바뀐 예비후보들은 정상적인 경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중앙당은 바뀐 선거구에 대해서는 ‘사고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지역구에 도전한 현역 비례대표의원인 김학재(단원갑), 안규백(군포)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송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전 총장은 시민운동의 산 증인이라는 측면, 백 변호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재임중 정치경찰의 행태를 비판한 용기가 평가됐다”고 전략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 민주, 이학영·송호창·백혜련 전략공천

민주통합당은 28일 경기 군포에 이학영 전 YMCA 사무처장을, 과천·의왕에 송호창 변호사를, 안산 단원갑에 백혜련 변호사를 각각 전략공천 했다.

이들의 지역구에 도전한 현역 비례대표의원인 김학재(단원갑), 안규백(군포)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민주당은 또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파주시, 세종시 등 4·11 총선에서 지역구가 증설되는 곳도 전략지역으로 결정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전략공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가 지역 선정과 인재 영입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서울의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갑에서는 그 상징성을 감안해 ‘나는 꼼수다’의 출연자인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장흥·영암·강진의 유선호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구의 경우도 유력한 전략공천 지역으로 거론된다.

특히, 강남을 등 강남권 공략을 위한 전략공천 가능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당의 결정에 맡길 전망 배

의원의 강남권 투입설도 나온다. MBC 앵커 출신의 신경민 대변인, ‘특수통’ 검사 출신의 유재만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서울 등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공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입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서울의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갑에서는 그 상징성을 감안해 ‘나는 꼼수다’의 출연자인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장흥·영암·강진의 유선호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구의 경우도 유력한 전략공천 지역으로 거론된다.

특히, 강남을 등 강남권 공략을 위한 전략공천 가능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당의 결정에 맡길 전망 배

의원의 강남권 투입설도 나온다.

MBC 앵커 출신의 신경민 대변인, ‘특수통’ 검사 출신의 유재만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서울 등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공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 ① 연수일정(2012년 제8기)

- 개강일시 : 2012. 3. 5(월)  
기초주간반 9:30, 기초야간반 19:00  
심화주간반 9: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1. 6(월) ~ 2012. 3. 2(금)
- 수업기간 : 2012. 3. 5(월) ~ 2012. 6. 18(월) (총 105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주간반, 아간반 각 30명  
심화반 : 주간반(기초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내용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면임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09:30~12:30  
- 아간반 19:00~21:50

● 수료 후 특전

1.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2. 단계별 기록증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추천

● 전시회 및 전시회 참가 기회 부여

● 전시회 및 전시회 참가 기회 부여